

AUTHOR 고헤필

TITLE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과 인간성 회복

IN 광신논단

vol.9 (April, 2000): 143-175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과 인간성 회복

고 광 필

(조 직 신 학, 교 수)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고민했고 고뇌케 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간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은 안개이다. 인간은 지렁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이다.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 번이나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없이 많은 성질과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소렌 키케고올은 인간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삶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사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했다. 자아의 개념이란 능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희랍사상에서는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성이 없다면 합리성을 상실한 정신박약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인간이 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이성 중심의 사상이다.

문예부흥과 신대륙의 발견은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을 달라지게 했다. “인간은 무엇이나?”는 질문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인문주의 거장의 한 사람인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봤다.¹⁾ 인간의 본질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인간이란 자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라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대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소름과 고모라의 속성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라고 정의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미소 속에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소름이 끼치게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한국에서는 인간은 야속한 존재라고 한다. 여기서 야속성이란 부패된 인간성을 의미한다. 아무리 야속성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 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미소 짓고, 울고, 변명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기까지 한다.

동양 사상에서는 모든 의식활동의 주체 그리고 도덕성의 원천인 마음을 보존, 연단, 맑게 해서 인간 본연의 성품 즉 자아를 이해하려고 한다. 서양 사상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요약한다면 동양 사상은 “너 자신을 실천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아는 데 중점을 두었고, 후자는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버리고 끌어” 본래의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²⁾ 이처럼 보는 사람의 관점에

1)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존엄성에 관한 연설」, 성열 편저(철학과 현실사, 1996), 94.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다르게 고찰하고 묘사한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안토니 A. 후크마는 인간의 본질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관념론적 (idealistic)인 유형과 물질적 (materialistic)인 유형이 그것이다.³⁾ 전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며 인간의 육체란 인간의 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성만이 인간의 근본으로 보고 있는 견해이다. 희랍철학에 의하면 이성이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 (divine spark)이며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후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것은 부산물로 여긴다. 그래서 인간은 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빈은 그의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인간에 대한 올바르게 확실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⁴⁾ 그렇다. 올바른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신성한 교리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 관한 지식과 서로 맞물려 있다고 칼빈은 말했다.⁵⁾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맞

2) 서양사상에서 자신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동양사상에서는 실천 혹은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영원불변의 자아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겨레신문, 12/17/99, P.21).

4)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유호준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0.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1, 1. Cited as ICR.

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앎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앎으로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 주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요 구속 주이신 하나님을 앎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지식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 27). 인간은 짐승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같은 날에 창조되었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living soul)이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참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빵과 하나님의 말씀”(마 4:4)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빵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인간은 자아상실을 가져왔으며 자아상실은 인간성의 황폐를 가져왔다(롬1:18-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케 하셨다.

칼빈에게 있어서 참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자아의 발견과 완성을 이해하고자 했다.⁶⁾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타락에 의해서 처음에

6)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enesis* Vol. 1 (Michiga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94-95. Cited as CM.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이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의 회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되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와 회복의 논리를 명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칼빈 이전의 하나님 형상의 개념 2) 칼빈의 하나님 형상의 개념 3) 하나님 형상 회복과 인간성 회복 4) 결론으로 하나님 형상의 본질 이해와 인간성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천명할 것이다.

I. 칼빈 이전의 하나님 형상 이해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창세기 1:26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에서 형상과 모양을 구별함으로써 시작한다. 사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용어이다. 그렇지만 다른 단어라고 해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형상과 모양은 원문에서 보면 동격이요 동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⁷⁾

동방 교부로서 신학의 아버지로 인정된 이레니우스는 형상(image)과 모양을 구별하여 형상을 자연적인 은사(natural endowments)로 모양(likeness)을 초자연적인 은사(supernatural gifts)로 이해한다.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양 즉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으나 자연적인 은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잃어버린 초자연적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졌으며

7) *Gen 1:26*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격어로 쓰였다. 그러나 70인 성경은 히브리어를 다른 두 단어로 번역했다(*κατ' εικονα ημετραν και καθ' ομοιωσιν*)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간다.

서방 교부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실은 인간 안에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정신 안에 있는 심리 현상을 통해서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정신(마음) 안에 기억, 이해,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타락 후에 인간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을 지라도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은가?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memoria dei/ self-memory as capacity for the memory of God and the common presence of God),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며(intelligentia dei/ self-knowledge as capacity for knowledge of God),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voluntas dei/ self-love as capacity for love of God)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man is related to God as the image of God)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능성은 가능성이지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 인간의 자기 기억, 자기 지식, 자기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와 일체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흔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일체와 인간 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과는 서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영혼)의 세 기능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John Edward Sullivan은 삼위일체의 흔적인 영혼의 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한다.⁸⁾

	stages of the trinity	parts of the trinity		
		memoria dei	intelligentia dei	voluntas dei
the mens after original sin	natural and potential	self-memory as capacity for the memory of God and the common presence of God	self-knowledge as capacity for knowledge of God	self-love as capacity for love of God
the mens as reformed by grace	supernatural and reformed image habitual to imperfect act	recollection of God-associated with the indwelling	knowledge of God ranging from faith to perception of God's presence in operation of Wisdom	love of God accompanying and preceding knowledge of him
the mens in glory	the state of the blessed-perfect act	the presence of God in the beatific vision	knowledge of God "as he is" in himself	love of God to its fullest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8) John Edward Sullivan, *The Image of God, The doctrine of St. Augustine and Its influence* (Dubuque: Iowa, The Priory Press, 1963), 144.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간다. 그는 형상의 회복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며 (고후 4:16), 조금 전에 인용한 사도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다(엡 4:24).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진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서 전진함으로써 날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사랑을 무상한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옮긴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욕망을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억제하며 축소하는 동시에 후자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단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수록 이 일에 더욱 정진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15:5)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생의 끝 날이 올 때에, 이러한 전진과 성장 가운데서 중보자 되시는 분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환영을 받아 지금까지 경배한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며, 하나님이 의해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썩지 않는 몸을 받으며, 별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볼 때에 하나님의 모양이 이 형상 안에서 완성되겠기 때문이다.⁹⁾

어거스틴에 의하면 매일 매일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성 안에서 성화 하계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지게 함

9) 성 아우구스티누스, 『삼위리체론』, 김종홍 옮김(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14권 17장 23절. “Though our outer man perish, yet the inner man is renewed day by day(2 Cor.4:16). And it is renewed in the knowledge of God, that is, in righteousness and in the holiness of the truth, as the testimonies of the apostle cited before say. He, then, who is day by day renewed by making progress in the knowledge of God, and in righteousness and in holiness, transfers his love from things intelligible, from things carnal to things spiritual: and diligently perseveres in checking and lessening his desire for the former, and in binding himself to the latter by charity. But he does this to the degree that he is helped by God.” 본문의 이탤릭체는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임.

으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롬 5:5).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며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된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인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와 같은 시도는 사변적이기 때문이다.¹⁰⁾ 뿐만 아니라 칼빈은 크리소스톰이 창세기 1:26-27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God's vicegerent)로서의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를 말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¹¹⁾ 그렇다면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II. 칼빈의 하나님 형상 개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성경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사변적이나 철학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회복에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 이점이 칼빈의 위대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1.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

10) CM, Vol. 1., 93.

11) 윗책, 94.

12) CM, Vol. 1., 94.

칼빈은 창세기 강해 논증에서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불가시적인 왕국은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의 영적인 은혜는 모든 것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감정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에 대하여 확신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까지도 우리의 생각 속에 형상화(For Christ is that image in which God presents to our view, not only his heart, but also his hand and his feet)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은밀한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로 우리는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분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성의 빛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아주 많은 특전으로 장식해 주셨으나 인간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여 그 결과로 그가 얻었던 모든 혜택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의 공화로 인간은 다시 이전에 몰수당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애(the loving kindness)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 이 지상에서 언제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 등의 이 모든 사실들도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한계를 긋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의 전체 영역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그분의 특별한 배려를 나타내사 그분에 의하여 보존되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인간을 마치 극장 안에서와 같이 그 안에 살게 하셔서 인간이 그의 위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경건하게 찬양하게 하셨다.

둘째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사용하도록 작정되었으며 그래서 보다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헌신하고 전념하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로, 인간은 깨달음과 이성(understanding and reason)으로 부여받아서 야수적인 동물과는 구별되어 보다 좋은 생활을 생각하여, 그 인간 자신의 인격에 새겨져 있는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나가게까지(he might meditate on a better life, and might even tend directly towards God, whose image he bore engraven on his own person)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정직성(all rectitude)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을 모든 선이 완전히 결핍된 자이며 맹인이 되어 깨닫지를 못하며 마음이 왜곡되었고 모든 부분이 부패된 자이며, 또한 영원한 죽음의 선고하에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곧 인간이 회복되는 역사를 추가하고 있다.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혜택을 발산해 주고 계신다. 이 지점에서부터 모세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¹³⁾

1) 하나님의 지혜, 의, 선의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13)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성의 빛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아주 많은 특전으로 장식해 주셨으나 인간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여 그 결과 그가 얻었던 모든 혜택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의 공화로 인간은 다시 이전에 몰수당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애(the loving kindness)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 이 지상에 언제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 등의 이 모든 사실들도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한계를 긋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의 전체영역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그분의 특별한 배려를 나타내사 그분에 의하여 보존되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이것이 본서의 주요한 논증이기도 하다." (존 칼빈, 「구약성경주해」 Vol.1, 창세기(개신교출판사, 1978), 42-43.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당신의 지혜, 의, 선의 표본(pre-eminent example of divine wisdom, justice and goodness)으로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탁월한 존재이다. 실로 인간은 작은 우주(a world in miniature/μικροκοσμος)이다.¹⁴⁾

탁월성을 준 목적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의 극장 안에서 감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찬양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목적은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였다(엡1:6).

2) 거울로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손과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지혜, 의, 선)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울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 주는 거울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심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거울”이라는 은유는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¹⁵⁾ 여기서 거울이라는 은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보는 거울이다. 거울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회복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14) CM, Vol. 1, 92.

15) CM, Vol.1, 64.

3) 깨달음과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깨달음과 이성(understanding and reason)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구별되며 형상을 각인 시킨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론적 유비(有備)(ontological enti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유비(analogia relationis)를 의미한다.¹⁶⁾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다.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 관계성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끊어지면 동시에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성도 끊어지게 마련이다.¹⁷⁾ 인격적인 관계성의 파괴는 인간성의 황폐를 가져온다. 인간성의 황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온갖 죄를 짓게 한다(롬 1:18-32).

4) 하나님 형상의 좌소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인간의 영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만 국한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¹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

16) 존재의 유비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형상의 이해는 비 성경적이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하다면 타락 후에도 인간은 성경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관계성의 유비란 본회피에 의하면 첫째,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구조가 아니라 그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선물로 주어진 관계(justitia passiva)이다. 둘째, 형상으로서 관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성을 설정하신 분이요 인간은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다(다이트리히 본회피, 「創造, 墮落, 誘惑」, 文惠錫 역(大韓 基督教書會, 1988), 53-54).

17) 존 H. 리스, 「칼빈의 삶과 신학」, 이용원 옮김(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52.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편집부번역(성문출판사, 1993), 1. 15. 3.

게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반영한다.

영혼은 오성(understanding)과 의지(will)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성의 임무는 오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고 의지는 오성이 구별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¹⁹⁾

2.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탁월성을 가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타락 후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구속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어진다.

1)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조상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은사는 잃어버렸고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책으로 몸부림치며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가인처럼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은 은혜의 위의 은혜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1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1, 1.15.7.

을 위한 모형과 본보기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한다.²⁰⁾

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한다.²¹⁾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형상 자체이시기 때문이다(히1:3).

히브리서 1:3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ὡς ἡν ἀπαύλασμα τῆς δόξης καὶ χαρακτῆρ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αὐτοῦ) 여기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헬라이어 카라테르 (καρκτηρ)라는 단어는 주화나 도장과 관계가 있는 언어로 "눌러찍다", "주조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래서 동전을 주조하려면 원판의 실체를 그대로 찍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실체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어를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KJV),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NIV), "the very stamp of his nature" (RSV)라고 번역했다. KJV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을, NIV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 됨을, RSV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심에 강조를 두고 번역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번역에 뉴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 실체, 성품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데 있다. NIV에서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라고 번역했다. "the son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에서 "is"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가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²²⁾ 로마서 8:29에

20) 존 칼빈, 「에베소서 설교」, 하 김동현 옮김(도서출판 솔로몬, 1995), 109, 127.

21) 「에베소서 설교」, 하 110.

22) CM, Vol. 20, 196-97. 고후 4:4 주석.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της εικονος υιου αυτου)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고후 3:18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την αυτην εικονα μεταμορφουμεθα)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신자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다”는 동사는 현재형임으로 변화하는 자체가 계속적임을 알 수 있다. 신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며 새 사람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차적으로 “갖다” (to have)라기보다는 “어떤 존재이다”(is)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를 규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차적으로 초대 교부들이 말한 것과 같이 단순히 이성이나 도덕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로서 특성 지우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고 일그러져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워진다.²³⁾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회복을 말한다.

2)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하나님의 형상

타락 후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없어졌다”, “부패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인가? 그러나 부패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잔존해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either-- or)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과 저것을 이야기 하는(both-- and)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말해진다면 구분 또는 분리되지 않음으로 말해질 수 있다.

칼빈은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annihilation)이 아니라 무서우리만치 그 형체가 알아보기 보기 힘들었다(deformed)고 말한다.²⁴⁾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자취를 보게 된다. 여기서 자취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residue) 혹은 잔여물(remnant)이라 부른다.²⁵⁾ 시편 8편 5절 주석에서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 인간 속에 숨겨진 종교의 원리, 인간의 상호교제, 죄 책에 대한 수치심, 법에 대한 순종심 등으로 말하고 있다.²⁶⁾ 바로 이런 자취 혹은 잔여물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게 한다.²⁷⁾ 따라서, 타락 후의 하나님의 형상을 요약한다면 초

23) 하나님의 형상을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논하는 안토니 A. 후크마의 책 「개혁주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라고 사료됨.

24)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15.4.

25)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2.17.

26) CM, Vol. 4, 102. 시편 8:5절 주석.

27)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2.17.

자연적인 은사는 없어졌으나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지만 남아 있다.²⁸⁾ 그렇다면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란 어떤 것인가?

즉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것이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데 충분한 의 뿐만 아니라 신앙의 빛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추방당할 때 그는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은사들은 박탈당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고 중생의 은총을 통하여 그것들을 회복할 때까지 영혼의 축복된 생활에 속하는 모든 자질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들 중에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결과 의를 위한 열심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자연적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것들이 제거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정신의 건전함과 마음의 정직도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자연적 은사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성과 판단의 잔재가 의지와 함께 다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약하여 깊은 흑암에 빠져버린 정신을 완전하고 건전하다고 부르지 않은 것이다.²⁹⁾

3) 도덕성과 거룩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 형상의 본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역으로 추적하여 형상의 본질을 이해한다. 그는 골로새서 3:10과 에베소서 4:24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참된 의와 거룩성에 있다고 봤

2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2.17. "Supernatural gifts destroyed: natural gifts corrupted: but enough of reason remains to distinguish man from brute beasts."

2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2.17.

30) CM, Vol. 1, 창세기 1:26 주석, 65.

다. 전자는 십계명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한 후반부를 말하며 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거룩성과 도덕성에 있다. 칼빈은 거룩성과 도덕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다. 둘의 관계성은 부분과 전체 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성이다.³¹⁾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룩성과 도덕성이 형상의 본질이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의 빛 아래서, 순수한 마음 안에서, 모든 건강한 각 기관들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³²⁾

4) 자신을 보는 거울로서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것이다(창 9:6).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본질상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다(고전 15:10).

5) 타인을 보는 거울로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타인을 보는 거울이다. 여기서 거울은 예수 그리

31) CM, Vol. 21, 295-96. 칼빈은 에베소서 4:24은 제유법(synecdoche)으로서 표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성과 의를 구분하면서도 상호 연결되었음을 강조했다.

3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15.4.

스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지존파를 보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을 토막내어 죽이고도 부끄러운 안색을 전혀 갖지 않았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가? 지존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것은 인간관계나 목회 상담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기 때문이다.

III.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과 인간성 회복

1) 자기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타락의 결과 인간은 창조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는 잃어버렸으며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끊어졌으며 인간성의 전적부패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죄 성을 가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잘못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온갖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무자비성을 말해주지 않는가? 인간은 이렇게 무자비해질 수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의 강력 범죄와 도덕성의 부패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은 무자비해지며 날이 갈수록 인간성은 황폐해지고 있다. 눈발을 경작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성의 황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종교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것도 부패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어버렸다. 하나님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지식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칼빈은 에베소서 설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에베소서 4:22-24)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헌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부패된 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새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사람도 그렇게 새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으신 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여기에 믿음을 통한 중생, 칭의, 성화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중생 하여 다시 태어나고, 칭의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지며, 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여 간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부인이 필수적이다. 자기 부인 없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부인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점에서 보면 신자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부인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이런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2) 새로움의 의미

에베소서 4:24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칼빈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교했다.

이제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4:24)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 줍니다. 이 의(righteousness)라는 말로써 그가 의미하는 것은 곧 '건전함'(soundness)과 '올바름'(uprightness)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속임이나, 적의나,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주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건전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얻지 못하시는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면서, 사람들에게 도둑이 되지 않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웃들의 재산을 도적질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의 명예를 강탈한다면 그런 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는 '거룩함'(holiness)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두 판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란 곧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위해(롬12:1),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 모든 부패와 부정을 피하며,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의 실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³³⁾

새로워짐이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성이다. 이 관계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과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³⁴⁾ 이러한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다. 성령님을 통한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간다. 부패되고 황폐화 된 인간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3) 모델 혹은 모범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한 모범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가 자기로부터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눅22:42).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둘째는

33) 「에베소서 설교」, 하, 125-26

34) 「에베소서 설교」, 하, 126, 127-28.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다(막 8:24).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육신의 정과 욕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사람은 이미 정과 욕(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 and desires)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갈 5:26).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시 정과 욕을 제거해야 하는가? 다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마음속에 촉발되는 정과 욕(the misdeeds of the body)을 성령으로 죽이는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다(롬8:14).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4) 그리스도 예수와 인간성 회복

오늘날 세상의 현실을 보라. 죄와 부패로 얼룩진 세상이 아닌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자르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상속을 해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은가? 만화를 보고 실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청소년이 있지 않은가?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하고 인간성이 황폐한 시대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신창원 신드롬이 생기며 그를 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왜 검찰이나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가? 불신이 팽배한

사회임을 반증하지 않은가? 사회부패를 보라! 사업하고 정치하는 사람치고 부패로부터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도덕성의 부패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사회는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인가를 반증해주고 있다. 어떻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신뢰하고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 이 “어떻게”에 대해서 많은 시도가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전혜성 박사의 여섯 자녀는 모두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그 중에 4명이 교수로 있으며 나머지는 의사와 미술가로 활약하고 있다. 전 박사가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는 저서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첫째는 “재승덕(才勝德) 말라”는 것, 즉 재주가 덕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둘째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다.³⁵⁾ 어떤 교수는 오늘의 사회의 생명 경시 사상은 물질만능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으려 도와야 한다고 했다. 정신과 의사는 맘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 상담연구원실장은 사회에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가정의 파괴에서 오늘의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³⁶⁾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비뚤어지기 시작하여 불량서클에 가입하고, 특히 가면 가출결석 전희 가망이 없었던 비행소녀였던 김미나 양(고1, 15세)의 고백은 이렇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나약한 자기 자신입니다.”³⁷⁾ 교도소를 탈출하여 한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신창원은 자신의 일기에서 재소자의 90%가 부모의 사

35) 「美의 「성공한 가정 모델」 전혜성 박사, 동아일보, 96/7/7.

36) 경향신문, 12/23/98, 시민공청회.

37) 경향신문, 10/23/97.

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고백했다³⁸⁾ 왜 인간성의 황폐는 오는가? 인간성의 황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이 있지만 결국 자아상실에 있다. 올바른 자아발견과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고전을 읽도록 학과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잘 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인간의 책이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적으로 황폐된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하신 분이 회복시켜야 한다. 그 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황폐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i)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발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탁월성을 부여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total depravity)가 되었다. 전적인 부패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18-19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묘사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육신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선한 것이 우리 자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38) 한겨레신문, 7/20/99.

만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마음은 없고 항상 악한 것으로 가고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 의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무의식적이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또 강요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열정에 의한 것이며, 외부로부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인간의 본성은 너무 부패되어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인간은 틀림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따라서 항상 악으로 가는 경향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된 인간은 끊임없이 성화 되어야 한다. 성화는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ii) 자아확립

자아확립이란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은 형상의 회복이요 자아확립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

3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35.

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킨다. “행위자가 모든 행위에서 우선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그가 자연적 필요에서 행위하든 자유의지에서 행위하든 상관없이 자기 이미지의 현시(現時)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자는 행위 하는 한, 행위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원하고, 행위에서 행위자의 존재는 다소 강렬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쁨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잠재적 자아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다.”⁴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온전해 지며(약2:24),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약 2:17).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13에서 신자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숙한 신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신자의 근본 문제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밧힘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리에다 유향을 먹이면 유향 오리가 된다. 유향오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먹지 못한 인간은 뼈뿔어지거나 나쁜 사람이 되어 교도소를 드나들다 인생을 마친다고 신창원은 자신의 일기에서 고백했지 않은가? 그렇다. 오늘날 인간성의 회복은 고전을 읽거나 자아발견과 확립에 관한 강의를 들은 다고 해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칼빈이

40) 한나 아렌트, 「인간조건」, 이진우·태호정 옮김(한길사, 1997), 제 5장 행위, 235. “모든 슬픔은, 말로 옮겨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면, 참을 수 있다.”(아이작 디네센, 같은책, 235에서 인용)

말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아픔을 많이 당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현대인을 특징 지우는 인간성은 “원한”이라는 언어로 말해질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 절망, 좌절에 대한 원한, 반부의 차이에서 오는 원한, 배신감에서 오는 원한, 왜 나만이 이렇게 살아야하는가? 왜 나만이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에 대한 원한은 인간의 영혼을 좀 먹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성을 황폐케 한다. 이러한 허무주의에 대한 대안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 즉 삶 자체라든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세상 같은 것들에 대해 갖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말한다. ... 정치적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개개의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특별한 은총으로 인식함으로써만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다양성과 인간들 사이의 상이성과 화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⁴¹⁾ 그렇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롬1:21-23). 자아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자아상실은 옳지 못한 일을 합리화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든다(롬1:28, 32).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아상실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데서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박국에 보면 “없을 지라도” 하

41) 알랭 핀킬코라우트, 「잃어버린 인간성」(도서출판 당대, 1997), 228-29에서 재인용.

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하지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합3:17-18).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원망은 생활이 어렵거나 힘들 때 나오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민32:11-12).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랑의 표현이다.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민 14:11-12). 믿지 못할 때 불신과 원망이 나오며 감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함이 없는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감사의 생활이다(합3:17-18). 이 목적에 맞추어서 살지 않을 때 결국 그 인생은 어둠의 세계에 살게 된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확립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연약한 자아가 확립되어 결국 사회에서 소외된 인생을 살게 된다. 자아상실과 황폐를 가져온다. 올바르게 건전한 자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데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는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볼 때가 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렇게 봤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다.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한국인 유학생을 죽였다. 또한 흑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봤다. 한국의 만국병인 지역감정도 우월주의의 소산이 아닌

가? 인종과 문화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보는 안경이다. 이 안경을 쓰고 볼 때 이 세상에 우월한 민족도 인간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 되어져할 부분이지 질이 다른 인간이나 민족이 아니다.

5)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거울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말한다. 여기서 거울이라는 은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칼빈은 로마서 1:20 주석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힘과 신성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반영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형상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 영광을 비추는 만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거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배려이다. 인간이 스스로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만 인간은 존재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과 인간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당신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각인 했다. 따라서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³⁾ T. F. Torrance는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은혜

에 기초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했다.⁴³⁾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도덕성과 거룩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회복된 신자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도덕성과 거룩성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자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후 5:21).

세상의 학문에서는 참 인간이 되는 것을 도덕성에 중점을 둔다. 칸트도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그래서 도덕성만 회복하면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온전한 인간이란 도덕성과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말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름발이처럼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반쪽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성의 회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성의 존엄성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

42)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Michiga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9), 18.

43)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Grand Rapids, 1957), 79.

IV. 정 리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은사는 잃어버리고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다. 그래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영혼이요 본질은 거룩성과 의에 있다(엡 4:24).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의는 도덕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거룩성은 예배를 의미하며 의는 상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신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하나님과 관계한 십계명) 상호간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화 된 삶을 의미한다.

자아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다. 자아 상실은 하나님의 상실을 의미하며 인간성의 황폐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간성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인간성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보는 안경과 같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요 인간에게 결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와 회복이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혹은 반영하는 진정한 신자로 자라감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